

눈미[臥山里] 웃당¹⁾ 불도삼승또(佛道產神一).

옥황상제(玉皇上帝) 말잣뜰[末女]아기 부모의 말씀에 눈을 트니²⁾,

“인간에 귀양정베 보네라.”

귀양정베(定配) 보네니, 노각성주부줄로³⁾ 와산(臥山) 당오름⁴⁾ 상상봉오지[上上峯]에 누려왔는
디, 그때 와산(臥山)인간 하나이 주식(子息)이 엎어서, 스십(四十)이 됐도록 주식이 엎어 문점(問
占)을 했니 ‘뜬굼에 웃이⁵⁾ 솟아난 큰 돌을 위하여라’ 헌난, 그 부인(夫人)이.

“어딜 가민 큰 돌이 시코?”⁶⁾

“당오름 상곡지[上頂]에 난디웃인⁷⁾ 큰 돌이 싯젠 허여라.”⁸⁾

그 돌을 촛안 제(祭)를 지난 후 포테(胞胎)가 되여 날 돌이 당호므로 제(祭)를 지네레⁹⁾ 당오름
을 오르젠¹⁰⁾ 했니, 당오름 중허리엘 가니 종애[脚]가 무거워서 올라갈 수 엎어, 그디 쉬여둠서¹¹⁾
하는 말이.

“저 우희¹²⁾ 이신¹³⁾ 조상(祖上)님이 영급(靈及)이 싯건¹⁴⁾ 요만이나¹⁵⁾ 오랑그네¹⁶⁾ 좌정허여시민
우리 조손덜토 헌쓸¹⁷⁾ 덜 못준딜 일¹⁸⁾ 아니우꽈?”¹⁹⁾

하며 축수(祝手)를 했고, 질 몬첨²⁰⁾ 지나난 디 간 제(祭)를 지나두고 누려오란,²¹⁾ 헤산(解產)
열려 생남(生男)을 보니, 지꺼진 짐에²²⁾ 치새(致謝)로 또 출려아전²³⁾ 제(祭)를 지네레 가단 보
난²⁴⁾ 몬처²⁵⁾ 가단 쉬멍²⁶⁾ 축수(祝手)하여 난디²⁷⁾ 미력상돌[彌勒像石]이 누려오란 좌기허여시
니.²⁸⁾ 그디서 제를 지난 후엔 축사(祝辭)를 올리ಡ.

“좌정흘 들로²⁹⁾ 좌정(坐定) 헌민 일만조손(一萬子孫)덜이 조상(祖上)으로 위해야 우망적선(爲望

1) 웃당 : 당명(堂名). 위쪽에 있는 당.

2) 눈을 트니 : 뜨니. ‘눈을 떴다’함은 부모말씀에 거역 반향했다는 뜻.

3) 노각성주부줄 : 미상. 신이 하늘에 오르내리는 길인 줄인 듯함.

4) 당오름 : 악명(岳名).

5) 뜬굼에 웃이 : 예측없이. 우연히.

6) 시코 : 있을까.

7) 난 디 웃인 : 난 데 없는.

8) 싯젠 허여라 : 있다고 하더라.

9) 지네레 : 지내려.

10) 오르젠 : 오르려고.

11) 쉬여둠서 : 쉬면서. 쉬고 있으면서. 쉬고 있는 채로.

12) 우희 : 위에.

13) 이신 : 있는.

14) 싯건 : 있거든.

15) 요만이나 : 요만쯤에나. 이만큼에나.

16) 오랑그네 : 와서.

17) 헌쓸 : 조금.

18) 못준딜 일 : 못견딜 일.

19) 아니우꽈 : 아닙니까.

20) 질 몬첨 : 제일 먼저.

21) 누려오란 : 내려와서.

22) 지꺼진 짐에 : 기쁜 김에.

23) 출려아전 : 차려서. 차려 가지고.

24) 가단 보난 : 가다가 보니.

25) 몬처 : 먼저.

26) 쉬멍 : 쉬면서.

27) 허여 난디 : 했던 데.

28) 좌기허여시니 : 좌기(坐起)하여 있으니.

積善)을 헌겠수다.”

뒷날[翌日]은 또 제초(再次) 간 보니 고장남방³⁰⁾ 만년(萬年) 폭낭³¹⁾ 알[下]로 좌정하여.
“삼월 열사흘날[十三日] 본명대제일로³²⁾ 자손에 선천미맹을³³⁾ 받으민 주식(子息) 엇인 자손(子孫)엔 인간 탄승(誕生) 시기곡 주마.”³⁴⁾
영허여³⁵⁾ 위호는 조상(祖上)입네다.

- 朝天面 咸德里 男巫 高明先 口誦

와산리 윗당의 당신은 불도삼승또입니다. 옥황상제 막내딸아기가 부모의 말씀에 거역하니,
“인간에 귀양정배 보내라.”
귀양정배를 보내니. 딸아기는 노각성자부줄로 와산 당오름 꼭대기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때 와산에 사는 어떤 사람 하나가 사십이 되도록 자식이 없어서 점을 치니 ‘홀연히 솟아난
큰 돌을 위하여.’ 하므로, 그 부인이,

“어딜 가면 큰 돌이 있을까?”

하고 찾더니,

“당오름 꼭대기에 난 데 없는 큰 돌이 있다 하더라.”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부인은 그 돌을 찾아 제사를 지낸 후 포태가 됩니다. 해산달이 되니 부
인은 다시 제사를 지내려 당오름을 올라가는데, 당오름 중허리에 가니 다리가 무거워서 올라갈
수 없으니, 그 자리에 앉아 쉬면서 하는 말이,

“저 위에 계신 조상님이 영급이 있거든 요만큼에 와서 좌정하였으면 우리 자손들도 조금 덜
괴로울 것 아닙니까?”

하며 축수를 하고, 제일 먼저 지냈던 데 가서 제를 지내두고 내려와서 해산을 하니 생남을 합
디다. 기쁜 김에 치사하러 또 제물을 차려서 제를 지내려 갑니다. 가다 보니 산 중턱의 먼저 가
다가 쉬면서 축수하였던 곳에 미륵상들이 내려와 좌정하여 있으니, 거기서 제를 지낸 후에는 다
시 축사를 올리되,

“좌정할 데로 좌정하면 일만자손들이 조상으로 위하여 적선을 올리겠습니다.”

다음날은 또 재차 가 보니 고장남방 만년 팽나무 아래로 좌정하여 있습니다. 그로부터 삼월 열
사흘 날 본명대제일로 자손에게서 제의를 받으면 자식 없는 자손에게는 인간 탄생을 시켜주고
자손을 돋고 키워준다고 하여 위하는 조상입니다.

현용준·현승환, 『제주도 무가』,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6, pp.312-315.

29) 들로 : 데로.

30) 고장남방 : 와산리(臥山里)의 지명.

31) 폭낭 : 팽나무.

32) 본명대제일 : 본명대제일(本命大祭日).

33) 선천미맹 : 제의(祭儀)·축원(祝願)의 뜻으로 씀. '서천제민 공연'.

34) 그늘락 주마 : 도와 키워 주마.

35) 영허여 : 이리하여.